

## 東西洋人の 數學思想<sup>1)</sup>

校海 金 洛 泳 譯述

### (一) 自然的及人爲的의 發達

大抵 數學의 發端은 二種 原因이 有하니 第一은 人類 社會生活上에 必要且 第二는 人心 社會公益上에 必要가 是라 有史以來 世界人類의 發達起原을 講究하건대 如何한 國土에 如何한 人民을 勿論하고 均一히 此 第一原因으로 數學의 思想을 發起치아니한 者無하니 此 所謂 數學의 發端이요 物의 多寡를 計하며 物의 大小를 度한다 乎은 言文學의 發端이니 所謂 人類가 相集하면 言語를 通하고 相離하면 文字를 用하여 其意思를 互相 交換하야 言文學과 數學이 同時發達하 所以로써 現世와 如何한 文化를 致한거순 東西洋史乘에 證明이 昭著하니 乎 人類가 社會를 組織하 以後에 物을 計算하는 方法은 結繩의 政과 象形의 文字又호거시 同時代에 肝要를 起하 거신다 第一原因是 다만 人類의 智識을 發達하는 데 用하는 要素인 고로 此 原因으로써 起한 文과 數의 知識은 智力 競爭에 不過하더니 其知識이 進就하는 데로 純朴하던 風習은 狹黜을 作하고 親睦의 慣習은 爭奪노 變하여 畢竟是 社會로써 慘逆한 悲境에 陷沫케 乎였으며 古代

聖賢들과 其他 指導者들은 人類生存上 必要로 起한 第一原因되는 文과 數量矯正하여 第二原因에 誘導식으로 社會의 幸福을 增進케 乎였도다

然則 第一原因是 自然□의 發達이요 第二原因是 人爲的의 發達이니 吾人 人類社會로 自然的 發達에만 一任할 時는 一變하여 智識의 增進이 되고 再變하야 智力의 競爭이 되고 三變하여 智力의 爭奪을 行함에 至하니더니 楚絅는 眞正하다 云하고 堯舜은 驕詐하다 云하는 荀子의 性惡說은 自然的 智識 發達上으로 觀察치 아니한 所以니 故로 此 自然的 發達되는 第一原因은 矯正하기 為人하여 人爲的 發達되는 第二原因으로써 人智量 啓發식 人類의 性은 善이라 稱하야 自然的 發達되는 智識을 善의 方向에 北進케 乎였스며

第二原因도 第一原因은 接踵而起하여 其起原이 頗히 遠遠하니 乎 古代帝王과 其他 指導者들이 第一原因으로 由起한 人類智識競爭의 弊를 禁止하기 為하야 設行한 方法이니 其國土를 從하여 差異가 或有하나 亦是 人文發達上에 自然히 經過한만한 原因이 됨으로써 其最初時代에는 宗敎와 其他敎理를 造用하여 人民의게 其智識發達됨이 宗敎及敎理에 基因한거스로써 為主敎傳하여 人心에 信仰을 固定케 乎거시 大概大同小異한거신다 人類의 智識發達은 社會의 公益을 圖함에 在한다고 斷定한 孟子의 性善說이 卽此니 이는 第一原因으로 第二原因에 歸正케 乎거시라 謂하리로다 要컨대 人類의 知識發達史는 人類生活上에 必要로 起한 自然知識의 發達노始起한 것이며 此를 第一原因이라 稱하고 其次에 其弊害를 矯正한만한 宗敎나 敎理를 基因하여 人心에 信

1) 이 글은 광무 11년(1907) 5월과 6월 발간된 太極學報 제10호와 제11호에 걸쳐 개재된 글이다. 太極學報는 동경 한국유학생들의 모임인 태극학회가 1906년 8월에 창간하여 1908년 11월(통권 27호)까지 발행한 월간지이다. 太極學報는 “회원 상호 간에 학식을 연마하고 동포국민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간행되었으며 동인지의 성격을 넘어서 널리 대중을 상대로 하였다.譯述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外國 文獻을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자료 제공: 건국대 장경윤 교수)

仰을 與 否 으로써 第二 原因 을 組創 했고 此로  
由 之여 自然히 發達되는 智識 을 誘導 식힌 二  
種 變化 가 生來 했더라

## (二) 統一方法과 分派方法

各國人智의 自然的 發達 形象은 前陳과 如  
히 大同小異 했어 第二原因 人智의 發達을 纠  
正함으로 甲乙의 差異가 生해 했으니 甲은 第  
二原因 을 從 之여 第一의 原因이 殆히 消滅 했  
에 訓하고 乙은 第一 原因과 第二原因 을 兩股  
相俟 했어 進步 發展한 거신데 甲便 을 稱 했어 統  
一方法이라 했고 乙을 稱 했어 分派方法이라  
했더라

東洋의 人文 發達이 上古에는 西洋보다 문  
져 되여 西洋에 漸次 傳達 했었지만 恒常 統  
一方法 을 由 之여 人智의 發達을 圖 했기 所以로  
爾後 遂巡進步가 되지 못 했고 도도히 西洋文化  
가 古代에는 蒙昧 莫甚 했더라 中世紀以來로  
古代의 統一方法 을 脫去 했고 分派方法 을 執行  
했었음으로 今日 如許 했어 進展을 致 했으니 比  
言 했면 東洋人은 松과 如히 乾燥地에 生長 했  
는 것과 楊柳와 如히 沾濕 했는 地를 妨害하는  
植物 을 其性質의 合不合은 不擇 했고 同一 했  
土塊上에 併植 했어 生長을 圖 했고 如하니 이  
는 枯凋 壽 一例요 彼西洋人은 各種植物의 適  
性으로 土質을 擇 했어 分派生長 했고 如하  
故로 西洋人의 移植 했는 文化는 特種特質 노 枯  
凋 했었고 西洋人의 移植 했는 文化는 其性質을  
從 之여 각히 發達 했에 至 했더라 大抵 統一  
method 下에 在 했는데 科學은 宗教 其他數理로 一土  
塊內에 收縮 되여 生長만 못 했뿐 아니라 만일  
科學中 其宗教數理에 背離 했는 性質의 科學으로  
思惟 했는 時는 此를 異端이라 했어 邪術이라  
排斥 했어 荒蕪地에 投棄이 되게 했고 分派方法  
에는 人爲的 第二原因 을 由 之야 自然의 第  
一原因의 智識 을 纠正 했 후에 各科學은 其發  
育의 適合 했는 土地를 選擇生育 했으로써 其進步  
의 結果가 完全 했는 데 東洋人の 異端이라

邪術이라 排斥 했거순 西洋人들이 拾得 했여 有  
益한 科學을 構成 했 거시 多하니 假令 卜星術  
이 星學이 되고 鍊金術이 化學이 된거순 其一  
例며 東洋의 巴比倫人 印度人의 數學은 天象  
을 觀測 했기 為 之야 修用 했었고 埃及人은 天  
象觀測과 建築等史에만 為用 했여 修 했으나  
到底히 數學으로 獨立 했지 못 했었고 清國人도  
易理와 天象觀測에 每樣 用 供 했으나 周公時  
에 겨우 六藝中 末位에 編入 했에 不過 했으나  
며 此等諸國이 算術과 代數學과 幾何學들의  
知識도 己為持存 했으나 希臘에 傳達 했기 之  
지는 更히 進步된거시 無 했되 希臘人은 數學  
을 獨立 식혀 研究 했 결과로 畢竟 一科學을 含  
아 現世의 盛行 했는 各種 數學을 組織 했에 至  
했으나 假令 印度의 九執術은 進化 했어 算  
術과 代數學이 되었고 埃及의 測量術과 支那의  
周碑經은 進步 했어 幾何學과 三角術이 되  
었으나 以上과 如히 太古부터 文化가 如許 했  
발達 했 東洋諸國아 엇지 했여 印度는 今日 一  
死灰 뿐이요 埃及은 餘痕도 尊 處가 無 했고  
四川餘年同人種帝□의 歷史를 둔 大韓帝國과  
支那帝國은 猶然□儒敎下에 束縛 했여 손톱만  
한 勝古 發達이 □ 했뇨? 非他라 數學이 儒敎統  
一下에 在 했 所以로다

## (三) 自然的 原因으로 發達된 것

今에 史乘을 因 했어 東西洋人の 數學이 如  
何히 進步된거슬 考察 했어 품에는 문져 그 順  
序로 數學의 發端 되는 第一原因 즉 人類生活  
上 必要로 起 했 自然의 發達부터 陳述 했이 可  
할지라 前陳과 如히 第一原因은 最古 有史以  
前 口碑時代부터 起 因 했으나 不可不 留古 했  
史料를 依 했야 考察 했이 必要 했리로 一千年  
乃至 五千年 以上 古代를 潮考컨디 數學의 發  
端이 最古 했 國으로 其史蹟을 史乘에 傳 했  
者는 巴比倫, 支那, 埃及, 印度 四國이요 其後를  
繼續 했 者는 希臘인디 距今 四千年 以前부터  
巴, 支, 埃, 印 四國은 이의 國家를 建 했고 人

民을 支管을 엿보았으므로 其國人의 智識이 일족히 自然發達을 致하였다며 此를 因하여 數學思想은 一般生活上 必要로 由起인 줄을 準信할 것이요 또 그發達한順序는 第一次에 人民의 日常生業上 計算으로 數學思想을 生기고 第二次는 天象觀測으로 由하여 其生業上 計算에 時間이 衍伴할 줄을 知하여 更一層進展된 거순 以上各國이 다 同軌로다 希臘人の 數學思想發達은 紀元前六百年乃至七百年時代부터 起하였다며 此는 일족히 印度와 埃及에 交通이 有하여 多大한 數學思想을 模得하고 고로 自然的發達의 數學思想이 少하거니와 巴比倫, 支那, 印度, 埃及 此四國은 希臘보다 千有餘年 以前 一交通이 無한 時代에 數學思想을 發하고 고로 各其 自發의 知識이며 順序方法이 互相比同한거순 吾人の 異常たり 無하는 所以로다 今左에 此事蹟을 陳述하노니 巴, 埃, 支, 印 四國은 일족 人民의 蕃殖이 極히 엿보았으므로 其生業上 計算是 必要로 にて 指頭로써 物의 數를 計할시 自然十進法을 用하여 數를 記하였고 巴比倫人은 十進法 以外에 星學上 關係로 六十進法을 用하여 數를 記하였으며 支那에는 口碑時代부터 計算器로 算盤을 用하였다며 巴比倫은 其近傍 亞細亞 諸國의 商業中心點이 된고로 「아바카쓰」라 稱하는 算盤을 用하였다며 其後 此四國人民의 知識은 天象觀測 即 星學의 端緒를 發明하였다며 其主治者와 指導者들은 天時推測하는 것으로써 建國의 基礎를 삼았고 一年을 十二月 即 三百六十五日로 定하였다며 以上 三千年乃至四千年 以前에 天文을 仰觀하고 地理를 俯察한 諸事が더 四國史乘에 徵明이 昭著하였다며 그結果로 埃及에는 紀元前二千百八十年頃에 有名한 金字塔을 建하였다며 巴比倫에는 紀元前二千百四十七年頃에 天文觀測法을 造하였다며 清國에서는 더욱 일족히 姧舜當時에 環璣玉衡이라는 漉天儀를 製하여 天象을 觀測하며 曆法을 定하였다며 印度의 梵歷도 支那와 伯仲하여 其起因이 甚遠하도다 如此히 第二次에 起

한 數學思想은 第一次에 起한 日常生活 計算上에 時間을 加하여 數學의 應用을 一層高尚케 하였다

此四國人民이 일족 天象觀測에 從事한 事蹟은 星學上 歷史에 細詳하니 此를 除略하고 다만 天象觀測을 由하여 地理를 偵察하고 數學思想을 應用한 一二例를 示陳코자하노니 大抵 三角形의 三邊의 長이 각각 三, 四, 五될시는 그 三角形을 直角三角形이 된다는 거순 埃及人과 支那人의 일족히 發見한 바-라 埃及에서는 建築法이 進步하여 殿堂과 大層을 建築하는 데는 繩張師라 稱하는 技師가 有하여 直角三角形을 應用하여 家室의 方位를 決定하였다며 다만 南北의 方位는 太陽의 南中으로써 決定하였다며 즉 埃及의 金子塔이 此方位를 決定한 標準이요 南北의 方位는 容易하였다나 東西의 方位를 決定하기는 埃及人の 甚히 至難한 바-라 繩張師가 此方位를 決定함에는 몬체 已知의 南北線을 定하여 二介의 杠을 立하고 長이 四되는 繩을 係張하고 長이 三, 五되는 二繩의 각 一端을兩杠各端에 結着한 後에 此二繩의 他端을 結着하여 引張하고 그 結着點을 地上에 置하고 第三의 杠을 立할 時는 長이 三되는 繩의 方向으로 東西의 方位를 삼았다하니 至今 此를 觀컨대 南北線에 直角으로 直線을 引劃한다 而은 今日 普通中等敎育上에서 一直線에 垂線을 區劃하는 問題니 幾何學畫法에 極히 容易한 一問題라 그러나 當時 學問의 組織이 無한 데에는 直角이라고 名稱한 「定義」를 두기도 어려운 고로 當時 人民의 知識으로는 決定치 못하였다며 後世 선리(希臘)國 學者 테루스, 피자풀나쓰, 유-크릿드 等이 埃及 幾何學을 取하여 證明하기까지는 此方法이 오리동안 繩張師의 秘法裡에 埋沒되어 世上에 知用한 者無하였다

거의 同時代에 支那人은 直角三角形의 三邊이 三, 四, 五되는 것을 知得하였다며 支那에서는 直角三角形을 斜股形이라 稱하고 直角을 包有한 二邊을 斜股라 稱하고 斜邊을 玄이라

稱<sup>한</sup>여 句三, 股四, 玄五로써 句股率이라 稱<sup>한</sup>여고 此句股理를 建築法에 應用<sup>한</sup>였으며 埃及人은 金子塔으로 南北의 方位를 定<sup>한</sup>였으나 支那에서는 上古부터 南北의 方位를 定<sup>한</sup>한 事蹟이 昭然<sup>한</sup>니 假令 一神話를 舉明<sup>한</sup>진더 黃帝-蚩尤로 더브러 涵鹿野에서 戰<sup>한</sup>時에 蚩尤가 大霧를 作<sup>한</sup>여 兵士가 道를 迷失<sup>한</sup>케 한거늘 帝-指南車를 作<sup>한</sup>여 四方을 指示<sup>한</sup>으로써 畢竟 蚩尤를 擄獲<sup>한</sup>였고 紀元前 千百年 頃에 交趾南越裳氏가 重譯而來<sup>한</sup>야 白雉를 獻貢<sup>한</sup>고 其使者歸路에 迷<sup>한</sup>거늘 周公이 指南의 制로 □車 五乘을 賦<sup>한</sup>미 使者 載歸<sup>한</sup>였다 한<sup>였</sup>으며 또 支那 建築師도 方位를 知<sup>한</sup>여 句股法을 應用<sup>한</sup>였으며 四書典制에도 匠人營國, 定九緯

九經, 匠人建國, 識日出日入之景, 曲者中約, 直者中繩이라 한<sup>였</sup>으니 緯와 經은 南北線과 東西線이요 九經九緯라 흥은 支那 規矩理가 九九八十一로 出<sup>한</sup>였으며 凡數를 乘法으로 生<sup>한</sup>거시되는 고로 建築師가 天象을 由<sup>한</sup>여 經營<sup>한</sup>거순 支那와 埃及이 同一<sup>한</sup>더라 埃及에는 自來로 나일가河가 汎濫<sup>한</sup>는 고로 陸地測量<sup>한</sup>는 거술 必要로 삼<sup>한</sup>으니 故로 直角三角形의 數와 및 幾何學의 應用을 啓發<sup>한</sup>였고 支那에서는 大禹가 洪水量 治<sup>한</sup>時에 句股法을 擄<sup>한</sup>일은 周牌算經에 記載<sup>한</sup>였다 한<sup>니</sup> 以上 地理學의 應用으로 數學의 知識을 自然히 發達<sup>한</sup>事蹟이 埃及과 支那가 同一<sup>한</sup>도다